

본 해설자료에서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 해설을 하겠습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은 자세한 해설을 배제하고 **반드시 생각했어야 하는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지문을 읽을 때는 “**출제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전달하려는 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2. 문제에는 항상 지문의 특정 부분으로 향하게 해주거나 답을 추론해낼 단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POINT라고 명명합니다.) 이 POINT들을 잡아서 ‘**지문의 특정 부분으로 향해**’ 답을 찾습니다. 당신의 머리 속이 아니라!!
3. 하지만 문제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지문의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특정 부분에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개념	*⟨⟩: 관점, 경우
*□: 학자	*V: 순서
*___: 개념정의, 주장, 근거, 특징 등	

시험을 보면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찾을 수 있어도 당신은 이미 1등급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해설을 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㉔ **과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㉕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㉖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㉗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㉘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㉙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밀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㉚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문단

통화 정책이라는 소재를 제시하네? 그리고 대표적인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을 제시하군.

채권과 이자율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써줘야겠다.

채권매수 → 이자율 ▼
채권매도 → 이자율 ▲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도 제시하네? 써줘야지.

이자율 ▼ → 물상 ▲
이자율 ▲ → 물상 ▼

관계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채권매수 → 이자율 ▼ → 물상 ▲
채권매도 → 이자율 ▲ → 물상 ▼

지금까지 '공개 시장 운영'에 대해 이야기한 건데... 왜 제시해줬을까?

2문단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가 무엇일까? 1문단에 제시되었겠지?

이자율을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 목적이구나.

그러려면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필요하군.

애네에 대해서 설명해주겠지?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을 통해 '선제성'을 설명해주려는 것을 알 수 있네. '선제성'이란 것은 미리 대처하는 것이구나.

'정책 외부 시차' 개념을 제시해주네. 아, 정책 외부 시차 때문에 선제적일 필요가 있는거구나.

그런데 '정책 신뢰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

3문단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를 통해서 '정책 신뢰성'을 얘기해줄 것을 예측할 수 있네.

신뢰 얻는 방법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네. 그럼 2가지 이상 관점이 나오겠군.

첫 번째 관점은 프리드먼의 관점인 '준칙주의'네. 준칙주의는 언제나 준칙을 지키자는 관점이구나.

3문단은 '준칙주의'를 설명해주기 위한 문단이었어.

4문단

마지막 문단에서는 3문단의 연장선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한 두 번째 관점을 언급해주겠지?

두 번째 관점은 '재량주의'구나.

'재량주의'는 준칙주의와 대비되게 신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네.

아 그래서 출제자는 우리에게 대표적인 통화 정책인 '공개 시장 운영'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싶었던 거였어. 공개 시장 운영이 성공적일 조건으로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을 제시했고, 2문단이 '선제성'이 필요한 이유. 3~4문단이 '정책 신뢰성'에 대한 두 견해에 대한 내용이었군.

여러분의 머리에 남아있어야 하는 정보는 위에 2줄이면 됩니다.

이것이 핵심흐름이고, 나머지는 문제에서 POINT를 잡아서 지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해설 들어가보도록 하죠.

22. 밑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65%의 학생이 맞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모호하게' 접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틀린 선지를 제거해 남은 선지를 답으로 고르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의 과정을 통해 답을 맞추었다면 여러분은 분명 30번대의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남은 시간이 10여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발문에서는 별다른 POINT를 찾을 수가 없군요. 바로 선지로 들어가서 POINT를 찾아봅시다.

1번 선지를 보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다고요? 1번 선지의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통화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전 잘 모르겠군요. 다만 지문 어디에서 "통화 정책의 목적"을 언급했는지 알겠습니다. 핵심흐름을 기억하고 있고 지문을 읽으며 여러 표시들을 해두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언급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문단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2~4문단은 목적 달성의 조건을 언급했으니 당연히 1문단에 단서가 있겠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언급한 문단은 1문단이었습니다. 1문단으로 향해 단서를 찾아보니,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라는 말이 있네요. 통화 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지문에서 찾아낸 정보를 통해 선지를 재해석하면, [물가 안정에 대해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군요.

자, 그러면 이 글이 '물가 안정에 대해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지문 어디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화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보기>에서 POINT를 잡아봅시다.

- 1. 기준 금리가 4%
- 2. 병의 주장: 물가 상승률을 2%
- 3. 2분기와 3분기에 1%만큼 물가 상승률 낮춰야 함.
- 4. 기준 금리 1.5%p 변화면 물가 상승률 1%p 변화
- 5. 1/1, 4/1 수행
- 6. 정책 외부 시차는 1분기
- 7. 1개 분기 동안 지속

이 단서들을 조합해 '경제학자 병'의 제안을 알아내야 합니다.

물려 25%의 정답률을 기록한 문제입니다.

더욱 눈 여겨 볼 것은 답이 아닌 선지들을 선택한 비율입니다.

같이 보시죠.

①	②	③	④	⑤
18%	16%	23%	18%	25%

재밌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한 비율이 유사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이 문제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의도를 파악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 같네요. 빨리 풀어내려 하다가 오히려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틀리기까지 한 것이죠.

이 문제를 접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제자가 이 문제를 통해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발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발문은 출제자가 우리에게 문제풀이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발문을 읽고 나서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경제학자 병'이 제한한 내용]이 궁금했어야 합니다. 이 궁금증을 안고 <보기>로 들어가야 하죠.

문제는 POINT4입니다. 금리와 물가상승률(이하 물상)의 관계가 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지문에서 그 단서를 찾아봐야 합니다. 발문에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했으니깐요.

1문단의 이자율과 물상의 관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상관관계는 항상 문제와 연관이 있었으니까요.

이자율 $\nabla \Rightarrow$ 물상 $\Delta /$ 이자율 $\Delta \Rightarrow$ 물상 ∇

자, 그러면 금리와 이자율의 관계를 알아내면 금리와 물상의 관계를 알 수 있겠네요.

1문단에 '공개 시장 운영' 개념을 보면 [~채권을 매매해 이자율을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킴]을 찾을 수 있죠. 여기에서 금리를 낮추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금리를 높이면 이자율이 높아짐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이 단서를 통해

금리 $\Delta \Rightarrow$ 이자율 $\Delta \Rightarrow$ 물상 ∇

금리 $\nabla \Rightarrow$ 이자율 $\nabla \Rightarrow$ 물상 Δ

을 알 수 있죠.

다 왔습니다. 이제 앞서 찾은 POINT들을 조합하면 답이 보이겠네요.

2분기의 물상을 1%P 낮춰야 합니다. (P2, P3)

그러려면 금리를 1.5%P만큼 높여야 합니다. (P4, 지문정보)

그런데 정책 외부 시차가 있기에 2분기에 효과를 보려면

1분기 1/1에 수행 해야 합니다. (P6, P5)

결론: 기준 금리가 4%이므로 1.5% 높여 1/1에 5.5%가 되어 합니다.

3분기의 물상을 1%P 낮춰야 합니다. (P2, P3)

1개 분기 동안만 지속하고 정책 외부 시차가 1분기이므로 1분기에 수행한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P6, P7)

2분기와 마찬가지로 1%P 낮춰야 하니까 금리를 1.5%P 높입니다.

(P2~4, 지문정보)

정책 외부 시차를 고려해 4/1에 수행합니다. (P5, P6)

결론: 기준 금리가 4%이므로 1.5% 높여 4/1에 5.5%가 되어 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가 답이 됩니다.

<보기>POINT

1. 기준 금리가 4%
2. 병의 주장: 물가 상승률을 2%
3. 2분기와 3분기에 1%만큼 물가 상승률 낮춰야 함.
4. 기준 금리 1.5%P 변하면 물가 상승률 1%P 변함
5. 1/1, 4/1 수행
6. 정책 외부 시차는 1분기
7. 1개 분기 동안 지속

*지문을 통해 알아낸 정보

금리△ ➡ 이자율△ ➡ 물상 ▽

어려운 문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그렇지 않은 학생이든 상관없이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를 가르는 차이는 어렵게 느낄 때 취하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잘하는 학생은 어렵게 느낄 때, '지문과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반대의 학생은 어렵게 느낄 때, 그 선지에만 집착을 하고 다른 단서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단서가 3가지인데 2가지를 찾은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단서 때문에 답이 골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잘하는 학생은 지문에서 그 단서를 찾으려 노력하는 반면에, 반대의 학생은 2가지 단서로 어떻게든 답을 내려고 사고를 끼워 맞춥니다. 이때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고 결국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2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 POINT들은 많은 학생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POINT4와 지문과의 연관성을 고려해본 학생은 소수였습니다. 지문과의 연관성을 고려해보지 않았으면 금리를 낮춰야 하는지 높여야 하는지 판단을 전혀 할 수 없기에 선지 전체적으로 고른 비율이 비슷했던 것이죠.

24.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이 문제도 발문에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했어야 합니다. 22번과 마찬가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맞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발문에서 POINT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윗글의 ㉠과 ㉡입니다. ㉠과 ㉡이 무엇인지 지문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선택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문에 따르면 ㉠준칙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준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재량주의는 상황에 따라서 준칙을 지킬 수도 안 지킬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① 준칙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준칙주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죠. 무조건 준칙을 지키자는 입장이었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많이 고른 선택지인 ④번도 살펴보죠.

④ 재량주의에서는 준칙주의와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선지를 고른 학생들은 핵심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입니다.

핵심흐름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볼까요?

아 그래서 출제자는 우리에게 대표적인 통화 정책인 '공개 시장 운영'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싶었던 거였어. 공개 시장 운영이 성공적 일 조건으로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을 제시했고, 2문단이 '선제성'이 필요한 이유. 3~4문단이 '정책 신뢰성'에 대한 두 견해에 대한 내용이었군.

3~4문단은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준칙주의와 재량주의는 '정책 신뢰성'을 얻는 방법에 대한 견해입니다.

4번 선지를 고른 것은 준칙주의와 재량주의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